

수 신 : 제천시의회회장

2001. 4. 24

제 목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결의문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결의문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발의의원 : 시의회의원 김병창



외 3인

첨 부 1.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결의문 1부.

2. 발의의원 서명서 1부. 끝.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결의문

의안 번호	690
----------	-----

발의연월일 : 2001. 4. 24

발 의 자 : 김병창의원외 3인

1. 주 문

- 지난 4월 3일 일본 정부가 과거 일제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내용이 담긴 2002년도용 중학생 역사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한국 국민으로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음에 따라
- 우리는 작금의 일본의 우익적이고 군국주의적인 교과서 검정은 그 동안 두 나라의 선린 우호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라 판단하여 수정될 때까지 항의는 물론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 전 국민의 결집된 뜻에 동참과 함께 강력한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2. 제언사유

- 최근 침략 역사를 왜곡하여 충격을 주고 있는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며, 지난 세기의 불행한 역사를 잊지 못하는 우리들은 깊은 우려와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수 없음
- 일본은 과거 36년간 우리 한국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으며 이는 그 어떤 이유를 불문곡직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또한 올바른 역사인식에 섰을 때만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들은 확신하는 바임
- 이에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한국 국민의 격분된 마음을 응집하여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잘못된 행동을 철저히 규탄하고 올바른 역사를 미래에 남겨 동아시아 항구 평화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자 하는 것임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

결 의 문

제 천 시 의 회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결의문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4월 3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02년도용 중학생 역사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함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작금의 일본의 우익적이고 군국주의적인 교과서 검정은 그 동안 두 나라의 선린 우호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라 판단하여, 그로 인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하며 15만 제천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의 장래에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일본이 과거사를 은폐하고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왜곡된 역사를 교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 국민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 여러 국민과 평화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기능을 스스로 잃게 됨을 깊이 인식하여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재 검정은 물론 주변 피해당사국에 깊이 사과하여야 한다.

2.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해결할 힘은 교과서 검정권을 갖고 있는 일본 정부밖에 없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역사 날조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여 민간단체 및 주변국가들과 외교적인 압력 및 여론을 총 동원하여 반드시 수정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3.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다른 나라의 항의를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 당사국이 참혹했던 상처를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제침략을 미화, 자찬하는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므로 수정될 때까지 제천시민 및 각 기관단체에서는 일본상품 불매 등 전국민의 결집된 뜻에 적극 동참한다.




4. 우리 제천시 의회는 이번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가깝고도 먼나라”임을 되살리는 불행한 사태로 확산되어 세계 역사상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맺었던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달아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그 간의 행위를 사과함은 물론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바로 잡아 줌으로써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즉각 진실된 교과서 수정을 촉구한다.

2001. 4. 25

제천시의회의원일동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결의문 발의서명서

번호	직 위	성 명	서 명
1	제천시의회 의원	김병장	
2	"	최상기	
3	"	박태덕	
4	"	정영호	정영호